

영화 <갯마을>의 상징적 장소와 장소성

The Symbolic Place and Placeness in the Movie <Gat-Maeul>

손 은 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Sohn, Eunha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이 논문은 2007년도 국립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1.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2. 이론적 개념

2-1.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2-2. 공동체이론

3. 영화 속 장소와 장소성

3-1. <갯마을>의 상징적 장소와 상징적 의미

3-2. 현재 갯마을의 모습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장소(place)'는 환경, 공간, 위치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나 이것은 위치 이상의 것으로 통합되어있고 자연적 환경을 문화화한 개념이다. 또한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하며 이는 장소의 정체성과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장소감(sense of place) 등의 파생된 개념과 공존한다. 이러한 장소와 장소성은 인간이 매개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리고 인간 생태학을 토대로 하는 공동체 이론도 장소를 밑바탕으로 하여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갯마을> 텍스트에 나오는 인물들을 접목시켜 보았다. 이들은 바다를 매개로 자연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이 장소애착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공동체의 상징적인 장소, 즉 바다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 주인공 "해순"과 "해순의 시어머니"는 바다가 삶의 원천이며 자신의 몸과 뗄 수 없는 애착의 장소이나 "순임"에게 있어 바다는 죽음에 이르는 "깊은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당은 기도와 정성을 담아 예를 올리는 신화적 장소로 혹은 원망과 통곡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장소와 장소성은 인간과 환경, 시간, 활동, 공동체 의식, 경관, 상대적 위치 등에 의해서 매겨지는 중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갯마을>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일광바다의 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텍스트가

그 장소의 역사적 사실과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장소, 장소성, 상징, <갯마을>, 공동체 이론

Abstract

While the term "place" is interchangeably used to mean environment, space or position, the term is more than a position and embodies the culturaliz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Moreover, the term "placeness" refers to the comprehensive quality which makes a space into a place and distinguishes a given place from another place. This term coexists with the identity of a place as well as the related ideas such as a place attachment and a sense of place. A "place" and the "placeness" are ideas which cannot be formed without human beings serving as media, and they are based on the community theory or place which is built upon human ecology.

The intertwined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in the <Gat-Maeul> text are portrayed based on the aforesaid theoretical concepts. These characters form a natural community through the ocean as the medium, which depicts their place attachment. For "Hae-Sun," the protagonist, and "Hae-Sun's Mother-in-law," the ocean is the source of life, a place to which they are attached. For "Sun-Im," on the other hand, the ocean is the "profound image," a place of death. The shrine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is a mythological place in which people pay their respect with prayer and devotion. It is also used as a place of grudge as well as mourning. In conclusion, for human beings, a place and the placeness are multi-layered concepts which relate to certain elements such as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time, activities, community awareness, scenery and relative position.

Finally, after investigating the Il-Gwang ocean, the actual background of Gat-Maeul, it has been proven that this text reflects the historical facts as well as the presence of that ocean.

Keyword

Place, Placeness, Symbol, <Gat-Maeul>, Community Theory

1. 서론

1.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영화 <갯마을>은 1953년 발표된 오영수의 단편소설을 1965년 김수용 감독이 영화한 작품으로 60년대 문예영화 붐 속에서 흥행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바닷가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아낙네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또 그곳은 작가인 오영수가 살던 곳과 가까이 있어 작품 속 리얼리티가 가미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화는 원작 소설에는 없는 플롯을 더 추가하여 이 작품이 나타내려고 하는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도를 한다. 주인공 '혜순'이가 갯마을에서 살 때와 물으로 나왔을 때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장면을 추가해 자기가 살던 장소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부각시키고 있다.

영화 속 장소에 관한 이야기는 <갯마을>에서 조 감독을 한 나소원씨와의 인터뷰¹⁾를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경상남도 동래군(지금의 부산) 일평면 이천리'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시야에 들어온 그 곳의 경관은 시나리오에 나온 이미지와 무지 흡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작품 속 인물 간에는 계급 관계나 이해 대립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특별히 자본이 권력을 행사할 만한 시설이나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멀치배가 들어오면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멀치를 터는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계량 없이 '짓' 한 소쿠리씩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이곳 아낙네들 남편의 제삿날이 같은 경우가 많아 함께 제사도 지내고 서로를 의지하며 마을의 공동체적 삶을 산다. 이런 현대 문명과는 담쌓은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다와 함께 그대로 영화 속에 담아내려 했다고 한다. 나소원씨는 피카소의 "상상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앞설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그 곳의 경관이 곧 영화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이미 담고 있음을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결정론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장소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즉 구체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장소'에서 생활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곳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삶의 일부가 된다. 물론 이것은 장소 그 자체만

의 것이 아니라 장소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근린(neighborhood)과 생계를 위한 터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축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장소, 장소에착과 더불어 장소성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소성은 한 지역의 장소적 경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현실, 상징물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찾아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장소, 장소성과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갯마을>의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의 텍스트를 접목 시켜 장소와 장소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이론적인 부분을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과 '공동체 이론'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소개하고 후자는 시카고 학파의 인간 생태학을 기초로 하여 근접성, 영역, 사회적 동질성, 시간에 관한 이론을 접목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직접 탐방하여 영화 속 갯마을의 상징적 장소와 상징적 의미, '현재 갯마을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곳의 이미지를 영화 장면 속 이미지와 비교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와 비슷한 점과 변한 점을 비교해 볼 것이다. 또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며 현장을 찾았는지 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조사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인 개념

2-1.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렐프가 소개한 루커만(F. Lukermann)의 장소개념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하였다.²⁾ 첫째, 장소는 기본적으로 위치개념으로 내적인 특성과 다른 위치와의 연결성을 가진다. 둘째,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으로 모든 장소가 곧 고유한 실체이다. 셋째, 장소는 상호 연결되어있는 순환구조의 일부이다. 넷째, 국지적이다. 다섯째, 독특한 역사적 구성요소를 지닌다. 여섯째, 장소는 의미를 지닌다. - 인간행위의 바탕에 장소가 있고 인간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한다. 즉 장소는 환경, 공간, 위치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나 이것은 위치 이상의 것으로 통합되어있고 자연적 환경을 문화화한 국면의 개념이다.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 인터뷰 내용中, 2009.04.09

2)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의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29

이러한 장소의 개념은 지리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보면 장소는 건물이 세워질 물리적 영역이라는 범주적 사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유한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 실존적 입지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³⁾ 또 알베르 카뮈의 산문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정적인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는 장소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본 요소와 같다고 한다.⁴⁾ 여기서 '의미'는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속성으로 한다. 또 Entrikin(1997)은 장소를 일반적으로 사건, 사물, 행위가 펼쳐지는 공간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⁵⁾

한국에서의 장소에 대한 개념을 보면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사물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상을 통해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⁶⁾, "흔히 장소는 누군가로부터 읽히기를 기다리는 텍스트와 같다고 표현되는데 이는 장소에 항상 인간의 이해가 투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최병두는 장소란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과 이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로 표현한다. 즉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범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 추상적인 의미보다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이라 할 수 있다.⁸⁾

그리고 많은 종교인에게 장소는 경건하며 상당히 상징적이고 신성한 공간의 맥락 속에 있다. 그러나 현대의 유럽과 북미인에게 있어서의 장소는 상징성이 훨씬 약하며 특정 위치의 건물이나 지형, 영역에 부여된 의미나 관계에 따라 장소가 규정된다.⁹⁾ 이 두 경우 모두 장소는 일상 사회의 생활공간의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의 중심이 된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물리적 위치 뿐 아니라 그 곳의 인간과 사회, 관계, 의미 있는 문화적 맥락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흔히 공간은 장소와 어떤 때는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립적 측면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서로가 있어야만 정의되어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공간은 장소보다 더 추상적인 면이 강하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우리가 공간을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장소는 정지된 곳이다.¹⁰⁾ 한편,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구분 방식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트랜식(Trancik 1986)은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문화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를 담게 됨으로써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실존적 공간과 장소와의 밀접한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¹¹⁾

장소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장소성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소의 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애착 등을 토대로 형성된다고 본다.¹²⁾ 또 장소성은 비장소성(placelessness)의 반대쪽 극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장소가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지각적 국면, 그리고 문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실존적 국면이 제대로 부합함으로써 진솔성을 확보하고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유발하여 진솔한 장소감과 장소 정신이 형성된 총체적 특질이다."¹³⁾ 이러한 장소와 장소성은 인간이 매개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의미와 가치, 애착감 등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렐프는 이 개념은 도시나 경관의 물리적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 눈, 마음, 의식 속에 존재하므로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성질이 있다고 말한다.¹⁴⁾

그러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장소에 사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외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보이지 않는 힘이 그곳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갯마을>에서는 이러한 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일제'라는 권력이 분명히 존재했으나 식민지국이라는 사정상 숨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이다.) 경관의

3) 이승현, 이동언, 「노베르그-슐츠의 '장소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35권, 2003, p.149

4) 위의 책, p.112

5) Entrikin, 「Place and region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1 No.2, 1997, p.299

6)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2권 5호, 1997, p.181

7) 정희선, 「종교 공간의 장소성과 사회적 의미의 관계: 명동성당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7권 1호, 2004, p.98에서 재인용

8)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제8호 한국도시연구소, 2002, p.255

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의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p.63

10) 이푸 투안, 구동희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p.19

11)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p.175에서 재인용

12) 최막중, 김미옥,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 분석: 대학로 로데오 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2호, 2001, p.154

13)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p.181

14)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의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p.40

의미와 장소성을 밝혀내는 데는 경관에 투영된 권력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경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장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해석에 따라 텍스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한 지리적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¹⁵⁾

투안은 또 ‘장소감’과 ‘문화’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 장소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알렌(Allen)은 “어떠한 사람의 물리적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이라고 한다.¹⁶⁾ 장소감은 어떠한 위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장소인식을 가지게 만든다.

영화 <갯마을>의 사람들에 있어서 바다와 그 마을은 오랜 시간을 거쳐 정착된 장소이자 애착관계가 형성된 특별한 의미이다. 또한 그 안에 특별한 건축물(성황당)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가 내부 지향을 통한 중심을 다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 성황당은 각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매개의 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의 장소는 인간관계의 형성, 그들의 활동, 그 곳만의 특별한 의미로 인해 그곳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2. 공동체이론

시카고학파의 인간생태학(Chicago School of Human Ecology)은 식물과 인간의 공동체가 어떠한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된다. 로버트 파크는 시카고의 거리를 취재하기 위해 거닐다가 “도시는 하나의 사회유기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와 어니스트 버제스, 로데릭 맥켄지가 이 학파의 연구에 공헌을 한 학자들이다. 파크는 인간 생태학은 ‘공동체’와 ‘사회’라는 인간 생활의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한다¹⁷⁾. 공동체는 생태학에서 유추해낼 수 있고 사회는 사회 심리학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이론은 식물에서 유추하여 파생된 개념으로 경쟁(competition), 생태적 지배(ecological dominance), 침입과 계승(invasion and succession)으로 본다.¹⁸⁾

“존 카터와 트레버 존스는 근린지구 공동체를 ‘가구들의 친밀한 네트워크로 짜여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 공간으로서, 구성원은 대부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공통의 사회활동, 정보교환, 상호부조와 지원에의 참여, 그리고 함께 속한다는 공통된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정의한다.”¹⁹⁾ 주로 네 가지 주요요인이 근린 공동체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는 ‘근접성(proximity)’, ‘영역(territory)’,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 ‘시간(time)’이다.²⁰⁾ 이 네 가지 요소를 <갯마을> 텍스트를 통해 접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접성

‘근접성’은 공유된 활동과 관계는 자연적으로 가까운 접근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갯마을에서 마을 아낙들이 후리막에서 멸치를 함께 터는 작업을 공유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설의 원작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

초여름이었다. 어느 날 밤, 조금 떨어진 멸치 후리막에서 팽과리 소리가 들려왔다. 여름 들어 첫 팽과리다. 마을은 갑자기 수선대기 시작했다. 멸치 때가 물러온 것이다. 멸치 때가 들면 막에서는 팽과리나 나팔로 신호를 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막으로 달려가서 그물을 당긴다. 그물이 올라 수확이 많으면 많은 데로, 적으면 적은 데로 ‘젓’이라고 해서 대개는 잡어를 나눠 받는다. 수고의 대가다.

이러한 활동은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익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나눠주는 수고의 대가에 욕심을 내는 이도 없을 뿐더러 서로 더 퍼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시나리오 상에도 나타나는데 #67. 후리막(밤)을 보면 알 수 있다. “갈래의 로프줄이 당겨진다. 줄마다 아낙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었다. 급히 달려온 숙이네와 해순이. 두 사람은 적당한 사이에 끼어들어 로프를 당긴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부르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에헤야 데야... 에헤야 데야...」 노동요 소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합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작업은 각자의 집에서 먼 거리가 아니다. 일감을 알리는 팽과리나 나팔소리에 마을 아낙이 전부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을 보아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거리임을 알 수 있다. 손에 광주리나 바구니를 가지고 뛰어나가는 길에서 만나는 아낙들의 반가운 목소리와 짓궂은 장난들은 이들 공동체가 날마다 대면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2) 영역

‘영역’은 자기 주변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영역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15) 송희은,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적 의미의 사회적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 2007, p.26

16)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p.177

17) 질 발렌타인, 박경환 옮김, 『사회 지리학』, 논형, 2009, p.143

18) 위의 책 pp.142~143

19) 위의 책 p.149

20) 위의 책 pp.149~152

밝히고자 하였다. 패시언(Pacione, 1983)은 근린에 대해 개인적 애착, 우정, 근린단체의 참여, 거주지의 지속성, 근린시설의 사용, 거주자의 만족이라는 6가지 요인을 제시했다.²¹⁾

갯마을은 위치상으로 볼 때 바다를 앞에 두고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사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125

해순 「어무이 집에 언제 가」
 해순 엄마 「우리 집은 바다에 바다에서 살아야지……」
 해순 「남의 애들은 아버지도 있는데……」
 해순 엄마 「우리 해순이는 바다가 아버지다……. 바다에 안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안기 거니 하면 되는 거야……」
 해순 「바다가 아버지야?」
 해순 엄마 「그럼……」

해순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해녀였던 해순 엄마가 애를 배자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해순이를 낳았다. 원작의 묘사처럼 그녀는 바위그늘과 모래밭에서 바닷바람에 그을고 조개껍데기를 만지작거리고 갯냄새에 절어서 컸다. 해순 엄마도 해녀로 제주도 바닷가에서 자랐으나 결국 해순이를 시집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간다. 해순이의 “어무이예 가지마소…… 여기도 바다가 앙입니까. 가지마소…… 어무이 어호호…….”라는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장소는 같은 바다이지만 인식의 재현으로서의 바다라는 장소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정을 나누며 그 곳에 대한 만족감이 해순 엄마를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게 한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3) 사회적 동질성

‘사회적 동질성’은 상호이익이나 공통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더욱 고무시키는 것으로 함께 고난을 이겨냈을 경우에 이 의식은 더욱 견고해진다.

고등어 철이 되면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패를 짜서 배를 타고 같은 날 원양출어를 하게 된다. 그 때 문에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다. 이 마을만 하더라도 같은 달에 난 아이가 다섯이나 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맥락이지만 슬픈 사실은 과부가 유난히 많고 지아버의 제삿날이 같은 경우가 많다. 특히 영화에서는 원작 소설에는 없던 ‘순임’이라는 인물이 등

장한다. 순임이는 임신부이고 그녀의 남편은 성구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변을 당한다. 영화의 극적인 요소를 주기위해 순임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고 결국은 남편을 데려간 바다에 자기의 몸을 맡겨버린다. 이 장면은 극중의 다른 아낙네들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감정이입 시켜 촉각적으로 다가오게끔 만든다.

시어머니가 과부이고 며느리인 해순이 또한 23살의 새파란 과부이기에 들은 남편 없는 며느리가 애처롭고 아들 없는 시어머니가 가없어서 서로를 의지하고, 더욱 친자식과 같은 관계로 뭉쳐져 있다. 이 마을 다른 아낙네 또한 마찬가지로들이다. 해순이가 상수와 의 결혼으로 이 마을을 떠나게 되자 마을의 아낙네들은 섭섭하고 맥이 풀리며 눈물을 글썽대기도 한다.

특히, 미역 철이 되면 잠수를 하는 사람이 해순이 밖에 없어서 해순이가 미역을 빼어 올리면 아낙네들은 미역을 돌밭에 말리는 일을 했다. 그러나 미역 철이 되면 해순이가 더더욱 생각이 날 것이다.

4) 시간

사회적 연대나 상호 친근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고해진다. 이것은 장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게 되는 그곳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

해순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왔고 다른 아낙네들도 영화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오랜 세월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낙네들은 여름밤에 불가에 모이기를 즐겨했다. 이곳에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새는 줄 몰랐다. 이 또한 남편을 잃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한 아낙이 먼저 입을 열어 “에에야 데야 에에야 데야, 썰물에 돛 달고 갈바람 맞아 갔소.” 하면 아낙네들은 “에에야 데야, 셋바람 치거든 밀물에 돌아오소 에에야 데야”하고 주고받으며 타령을 부른다 이내 그만 목이 메어 버린다.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끼리 근접한 거리에 살면서 다 같이 미역을 채취하거나 후리를 털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며 세월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공동체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화 <갯마을>은 이런 네 가지 주요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아낙네들의 친밀한 네트워크와 공동의 사회활동과 상호부조들로 근린지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에 남편을 싣고 떠나 보내고 폭풍우와 풍랑이 일 때에는 함께 동네 어귀에 있는 성황당에 모여 용왕님을 부르며 빌고 절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 성황당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원망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된다. 공동체 의식이 표상

21) 위의 책 p.151

되는 장소는 구성원들의 관계 맺기의 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성황당은 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재차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²²⁾



[그림 1] 영화 속 공동체 의식이 장소를 통해 표상되고 있는 성황당 이미지(A:성황당, B:바위)



[그림 2] 실제 갯마을의 성황당(좌)과 바윗돌 사진(우)

실제로 같은 장소를 찾아가보니 아직 성황당과 그 아래로 바위와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밑으로는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들었으나 아직 B처럼 바다의 바위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영화의 시작은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기차라는 것은 산업화의 표상이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은 그런 문명화와 시간이 단절된 듯한 그들만의 장소이다. 외부인의 침입이 전혀 없고 동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서로 알고 지내며 집안의 대소사 또한 공유되는 집단적 장소로 표현된다. 또 영화 속에서 과부들끼리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타령을 하는 장면은 자연친화적 삶의 모습에 묻혀 자연스러운 영상미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와 비교할 만한 영화로 <다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 이 영화는 1979년 유현목 감독의 작품으로 갯마을에서 조감독이었던 나소원씨가 시나리오를 쓴 작품이다. 이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장소 또한 바닷가이다. 그러나 이곳의 장소의 의미와 이미지는 갯마을과는 상반된다. 먼저 주인공인 길너는 이곳 출신의 여인이 아니고 주막을 운영하며 어린 딸을 키우고 사는 인물이다. 이 마을에는 '염전'이라는 커다란 자본의 상징인 장소가 들어서 있다. 함께 모여 멀치를 털고 주는 대로 '짓'을 받아가는 갯마을의 아낙들과는 다른 삶인 것이다. 이런 자본의 힘이 있는 곳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영화의 제목은 이런 환경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판단에 근접한 거리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는 프로파

간다식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같은 바닷가에 터를 잡고 살지만 <갯마을>의 아낙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그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원천으로, "다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에서의 바다는 권력과 시기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3. 영화 속 장소와 장소성

3-1. <갯마을>의 상징적 장소와 상징적 의미

이 작품에서의 상징적 장소는 단연 '바다'이다. 그리고 그 안의 '파도' 또한 상징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 영화의 초반부부터 모래를 적시는 파도를 잡고 있다. 이때의 파도나 바다의 모습은 잔잔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모습은 예상하듯이 하나의 모습으로만 고집하지 않는다. 그곳은 해순이의 남편 상수를 앓아간 곳이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는 길이기도 했으며 순임이의 마지막 선택의 장소이기도 했던 잔인한 곳이다. 이러한 바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영화는 도입부부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도 나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말이다.

#2 포구(갯마을)

찰삭이는 파도!

조용히 밀려와서 모래를 적셔놓고 조용히 밀려간다.

NA: 이 갯마을은 파도소리에 해가 뜨고

파도소리에 달아지는 마을이며 저주를 안고 사는 여인들의 마을이기도 하다.

1960년대의 영화는 문예영화의 시대로 소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시나리오가 눈에 띄는 시기였다. 이 영화 갯마을은 이런 종류 가운데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이다. 영화는 원작에서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선명한 사건으로 드러내준다. 이를테면 해순이의 첫 남편 성구의 죽음은 동생의 발언으로 인해 명확하게 나타난다거나 두 번째 남편인 상수와 시집 간 후의 이야기도 새롭게 삽입된다. 그리고 상수의 죽음은 원작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플롯이다.

먼저 바다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기 전에 물의 원형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물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부드러운 물이고 다른 하나는 난폭한 물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을 부드러운 이미지로 상상한다. 이것은 난폭하고 광대한 바다의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22) 전종환, 「근·현대 한 민촌의 경관 변화와 장소성의 전개」, 문화역사지리 제17권 제3호, 2005, p.52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허구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부드러운 물은 다시 다음의 네 개의 형태로 분류된다. 1) 물의 물질적 상상력 2) 문화의 콤플렉스 3) 역동적 상상력 4) 모성적 상상력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인 물질적 상상력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물과 접촉함으로써 느껴지는 무의식의 세계가 다시 물질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이것을 세분화 시켜 살펴보면 ①봄의 물 ②깊은 물 ③복합적인 물로 나눌 수 있다. 봄의 물은 맑은 물로 '거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깊은 물은 잠자는 물로 '죽음에 대한 이미지'이고 복합적인 물은 물과 다른 요소와의 결합된 이미지를 나타낸다.²³⁾

본 작품에서 물 즉 바다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찾자면 해순이가 느끼는 바다는 복합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물과 다른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물이 아니라 봄의 물과 깊은 물의 두 가지 이미지를 합한 것이다. 즉 따뜻한 숨결과 같이 아늑한 느낌으로 다가와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쉼을 찾는 장소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머니를 멀리 떠나보낸 이별의 이미지다. 상수도 이런 바다를 잊어버리라고 종용한다. 그렇지만 해순이는 자기는 물에서는 살 수 없는, 운명적인 장소로 받아들인다. 바다에서 따온 미역만 보고도 향수에 젖는 장면이라든가 수숫대가 흔들리는 바람소리는 파도소리, 갈매기 소리로 들려와 참지 못하고 산허리를 기어오르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142. 동 방안

해순 「미역 나물이 있어에…… 어찌나 바다
냄새가 나는지 바다가 보고 싶어서
흔났어에……」

상수 「바다 생각이 아니라 성구 생각이 났지」

해순 「아니라에……바다는 제 친정집이
아닌교」

#148. 다시 밭

수숫대가 바람에 흔들린다. 썩-썩-하는 소리가
파도소리처럼 들린다. 땀에 젖은 해순이는 수숫대를
바라본다. 썩! 썩! 하는 바람소리는 완전히
파도소리로 환청된다. -아름하게 D-E되는 바다

해순은 눈을 크게 뜬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수숫대 소리가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해순이는
호미를 던지고 뛰다.

#150. 산정

바위 위에 오르는 해순,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나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눈물이 불을 적신다. 눈물을
씻으며 무료하게 바위에 앉은 해순

해순 「……」

더욱 더 거세게 들리는 파도소리, 갈매기 소리도
겹친다. 다시 고개를 드는 해순. 시체가 온통 바다가
되어 밀려온다.

또한 바다를 떠나 물에서 살면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상처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수도 죽어버린 이상 물에서의 삶은 해순에게는 의미를 다한 장소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순이의 남편 성구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깊은 물' 즉 죽음의 의미임을 아버지를 통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나고 자라 그곳이 전부인 그는 그곳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면 언젠가는 자기도 아버지처럼 그 곳으로 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음을 운명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순임이는 바다의 의미를 해순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주체에 따라 바다에 대한 해석이 다름을 보여준다. 해순에게는 새로운 삶을 기약하며 다시 돌아오게 된 희망의 장소인 반면 순임에게는 죽음의 바다 이미지를 깨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련의 장소이다. 또 순임이는 새로운 삶이 야기되는 아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스스로 포기한다. 작품 속에는 이런 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관객들에게 바다라는 장소를 간접적으로라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도록 만든다.

바다에 대한 애착은 해순이의 시어머니에게도 나타난다. 그녀는 남편을 그곳에서 잃었지만 두 아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산다. 그러나 큰 아들을 바다에 잃고 며느리마저 떠나버린 후에는 크게 낙담한다. 작은 아들 성질이 뜻을 만지작거릴 때는 굶어도 좋으니 배타지 말라고 노하는 모습을 보이나 성질이 물으로 나가자고 할 때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거절한다.

성칠 「어무이요 그람 고마 물으로 가입시다」

어머니 「그건 안된다. 저 소리 저 파도소리 안
듣고 우째 살 수 있난 말이다. 느그 아버지
목소리가 니 안 들리나? 안 들리나 말이다.
이 애미 마음도 좀 알아 도고」

성칠의 어머니는 바다가 곧 남편이자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 여성으로 이 마을을 떠나서는 못하는 장소 애착이 강한 인물로 설정 되었다. 이 삶은 단지 바다가 주는 풍성한 먹거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애환과 애증이 서려 있는 삶일 것이다.

그리고 해순이의 물에서의 생활이 영화에서 새롭게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평화롭고 한가로운 갯마을의 일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채석장

23) 오택근, 「물의 원형상징 연구 -김춘수의 '봄 바다'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12권 제1호, 1999, p.49

에서 돌을 나르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는 장면이나 채석장 인부들을 상대하는 대폿집에서 육보이는 장면을 통해 갯마을을 떠나 물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대립적 구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삶은 바다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며 바다가 주는 메시지를 담으려 한다.

3-2. 현재 갯마을의 모습

원작 소설 속 시간적 배경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상수의 징용을 통해 일제 강점기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을 들여다보면 현 시대상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계없는 듯한 초시간적 공간으로 그 곳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영화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초가와 같은 경관이나 인물들의 의상을 보고 대충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공간적 배경은 원작 소설에서는 동해안의 H라는 마을이라고 나와 있으나 영화 속 구체적 장소는 옛 경남 동래군 일광면 이촌리 바다를 작품 속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작품의 시나리오를 쓴 신봉승의 회고록에서는 그 곳의 로컬 칼라를 살리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그 시기에 그 장소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성과 현장성을 높였음이 증명된다.²⁴⁾

더구나 이곳(이촌리)에 가면 ‘오영수의 소설 갯마을의 현장’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직접 그곳을 탐방하여 살펴보니 바다를 하나 두고 이촌리와 학리라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서로 소설 속 배경이 서로 자기네 마을이라고 한다고 했다. 원작자 ‘오영수’가 주는 영향력과 영화보다는 소설(문학작품)이 주는 아우라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자부심과 마을 이미지 고양에 한 몫을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양쪽이 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양 마을이 연결되는 길가에는 ‘갯마을 민박’이라는 간판이 작품 속 ‘장소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갯마을 기념비(좌)와 ‘갯마을’ 민박집(우)

아래 [그림 4]의 (좌)는 이촌리의 풍경이다. 실제로 해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어촌계를 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도 콘테이너 박스

는 해녀 여러 명이 앉아 계셨다. 예전에는 300여 가구 정도에 해녀들은 4~50명이 되었다고 한다. 가구 수 대비 해녀의 숫자가 아주 많은 편이다. 고깃배가 이곳에 들어오는가를 물어보니 배는 이쪽에 없고 바다 건너 학리에 주로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아 소설의 장소는 학리이고 영화의 장소는 이촌리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었다. 두 곳 모두 조금만 나가면 해순이가 몸을 씻었을 법한 내천(일광천)과 방파제와 해녀 등 작품 속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고깃배의 유무는 결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부산 토박이 박훈하의 글에도 ‘갯마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곳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갯마을의 배경을 학리로 표현하고 있다.²⁵⁾

그곳엔 아무 것도 없다. 무찌르듯 달려왔지만 그곳은 <갯마을>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일 뿐이다. <중략> 50년 전 해순이와 상수가 만났을 방 바위는 시멘트에 덮여 방파제의 일부가 되었음직하고, 먼 바다를 보며 성구를 기다렸을 마을 뒤 언덕배기에는 이동통신 송수신 안테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듯 서있다.



[그림 4] 이촌리의 경관(좌) 과 학리의 경관 (우)

학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부두에 메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큰 식당 한 칸 담벼락에는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예전에 이곳 바다에서 일했던 해녀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 종류의 해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날 때부터 이곳에 계신 분들, 제주도에서 출가해서 지금껏 살아오신 분, 결혼으로 인해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이다. 작품 속 해순의 엄마도 제주도에서 출가해녀로 왔다가 이곳에 정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실제 그 당시에 이러한 출가해녀들이 있었음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에 대한 문헌은 학자들의 기록으로 『제주향토기』에 1887년 경남 부산부의 목도로 간 것이 시초라는 기록이 있고 1915년 당시 제주군 서기였던 예구치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²⁶⁾ 이러한 해녀들의

24) 김남석, 「한국영화에 나타난 부산 경남과 그 문화적 양상」, 동남어문논집 제20집, 2005, p.13

25) 박훈하, 『나는 도시에 산다』, 비온후, 2008, p.103

26)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 해녀와 입어 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8. p.9

출가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객주의 모집에 의한 것과 다른 하나는 해녀의 남편 2~3명이 공동으로 어선을 매입하여 가족이나 친척 등의 해녀를 승선시키는 것이다²⁷⁾.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중요성과 그들의 수입이 제주도 경제에 큰 소득을 올린다는 소식은 1920년 4월 22일자 <동아일보>에도 보도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부산, 울산 등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여자 수요가 사천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²⁸⁾ 그리고 이 시대에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도 출가하게 되는데 제주와 오사카의 직항로 개설로 인해 일본 출가의 발판이 다져졌다.

이런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은 작품 속에도 고스란히 묻어나 있고 실제 이 마을의 해녀들의 삶이기도 하다. 이곳의 해녀들도 남편들이 바다에 나가서 사고사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일찍 가서 혼자 사는 과부들이 많았다. 할머니들은 혼자서 물질해서 자식들 다 키워내고 지금은 직접 키운 채소를 팔아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다고 했다. “남편 명까지 산다고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벌이하면서 살고 안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말씨는 영화 속 “에비는 어디가고 에미가 벌어먹이려고 애쓰나……”, “이게 다 갯년의 팔자가 아니가!” 하던 과부 해녀와의 말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4. 결론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은 지금껏 ‘위치 지어진 한 공간’, ‘장소의 정체성’ 정도로 치부하였으나 이들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의미의 폭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파생된 용어들은 이미 지리학에선 많이 나왔고 연구 또한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공동체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성립이 되므로 이 공통성은 지역민의 공통된 역사를 상기, 확인 시켜주는 환경으로 나타나게 된다. <갯마을> 텍스트에 나온 인물들에서도 근접성, 영역, 사회적 동질성, 시간 등의 요소에서 공동체 의식이 나타났다. 또한 ‘바다’라는 상징적 장소에 대해 인물들이 가지는 장소감과 장소애착의 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바다’라도 곳에 따라 바위의 모습과 잡히는 해산물들, 물의 온도마저 다르다. 또한 그 바다를 둘러싼 해안가의 풍경이나 집단적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마을 분위기도 다르다. 장소 정체성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그 곳만의 독특함과 선명함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장소와 장소성은 하나의 특정한 요소로 기인되지 않고 인간과 환경, 시간, 활동, 공동체 의식, 경관, 상대적 위치 등에 의해서 매겨지는 중층적인 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29
- 이승현, 이동언, 노베르그-슐츠의 ‘장소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35권 2003, p.149
- 정희선, 종교 공간의 장소성과 사회적 의미의 관계: 명동성당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7권 1호, 2004, p.98
-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제8호 한국도시연구소, 2002, p.255
- 이푸 투안, 구동희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p.19
-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2권 5호, 1997, p.175
- 최막중, 김미옥,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 분석: 대학로 로데오 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2호, 2001, p.154
- 송희은,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적 의미의 사회적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 2007, p.26
- 질 발렌타인, 박경환 옮김, 사회 지리학, 논형, 2009, pp.142~143
- 전중환, 근·현대 한 민촌의 경관 변화와 장소성의 전개, 문화역사지리 제17권 제3호, 2005, p.52
- 오택근, 물의 원형상징 연구 -김춘수의 ‘봄 바다’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12권 제1호, 1999, p.49
- 김남석, 한국영화에 나타난 부산 경남과 그 문화적 양상, 동남어문논집 제20집, 2005, p.13
- 박훈하, 나는 도시에 산다, 비온후, 2008, p103
-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 해녀와 입어 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8, p.9
- 『동아일보』 (1920. 4. 22일자)
- Entrikin, 「Place and region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1 No.2, 1997, p.299
- 전중환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27) 위의 논문 p.19

28) “해녀에 일 년 벌이 실로 백만 원 이상” 『동아일보』 (1920. 4. 22일자)